| 현불 논단 |

삼척동자도 알지만 어려운 것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학문 · 벼슬에 교만했던 백낙천 거사
도림선사에 한가지 핵심가르침 물어

'칠불통계' 설하며 평생 의지 당부해
평이한 법문에 실망감 드러낸 거사에
"다 알아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일침

개인적인 고통에만 천착해서는 안돼
백낙천 교만·무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당나라 사람인 향산거사 백낙천은 당송팔대가에 꼽히는 유명한 문장가이며 정치가였다. 그는 학문에 자신이 있고 벼슬도 높아진 50대 초반 항주자사로 부임하였다. 자신이 부임한 항주의 진망산에는 도림 선사라는 덕망이 높은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나무 위에서 좌선을 하시곤 하는 까닭에 새둥지에서 지내는 듯 하다고 하여 조과선사(鳥窠禪師) 또는 작소선사(鵲巢禪師)라고 불리었다.

선사의 소문을 들은 백낙천은 선사의 도력을 시험해 보려는 마음을 먹고 스님을 찾아갔다. 마침 그 때 나무 위에서 좌선을 하는 스님을 보고는 문득 "스님 계시는 곳이 너무 위태롭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선사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볼 때는 자네가 더 위태롭네"라고 하였다. "스님께서는 나무위에서 위태롭지만 저는 땅을 딛고 있는데 뭐가 위태롭습니까?"라고 하니, 선사께서는 백낙천의 학문과 벼슬에 대한 교만함을 꿰뚫어보시고 깨우침을 주려 말씀하셨다. "세상의 지식과 벼슬로 교만한 마음만 늘어, 번뇌가 끝이 없고 탐욕의 불길이 쉬지 않으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 선사를 시험하려는 조금의 치기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선사의 이 한 말씀에 산산이 흩어져버리고 말았다.

백낙천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선사께 가르침을 청하였다. "제가 평생 의지할 법문을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이에 선사는 칠불통계(七佛通戒)를 설하신다.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들을 받들어 행하라.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基義 是諸佛敎)'

특별한 가르침을 기대했던 백낙천은 너무나 평이한 법문에 실망하였다. "그거야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사께서는 차분한 어조로 다시 말씀하셨다.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팔십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지."

백낙천과 도림 선사의 이야기는 신도들의 법회 때 자주 인용하곤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인생이 안정되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항상 안정된 직장과 주거, 안정된 건강, 안정된 인간관계를 바라며 살아간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상에 안정된 것은 없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나 자신도 함께 휩쓸려 변해간다. 쉼 없이 변해가는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다. 고통의 바다(苦海)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 마치 큰 거울에 자신과 타인이 동등하게 비치는 것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누구나 평등한 줄 뻣속깊이 알고 있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현실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 타인의 불행과 고통을 매일 방송과 뉴스로 접하지만 늘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스쳐지나가곤 한다. 때로 가슴이 아프지만 시간의 흐름에 결국 잊혀져간다. 다만 나의 불행과 아픔, 슬픔, 괴로움은 타인의 그것과는 정말 다르다. 도대체 잊혀 지지도 않고 벗어나기도 어렵다. 세상과 타인은 안정된 것 같고 나만 안정되기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세상은 평등하다. 나에게만 가혹할 리가 없다. 말을 배우면서부터, 세상을 배우면서부터 아는 것인데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저 백낙천의 교만과 무지가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가!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⑥ TVING의 '돼지의 왕'

죽어서도 살아있으려면…

TVING의 〈돼지의 왕〉은 학교폭력에 대한 복수를 다룬 수작(秀作) 드라마이다. '학교폭력' 이라는 과거 축은 연상호의 원작에 충실한 반면, '복수' 라는 현재 축은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추가되었다.

이 드라마가 서사 상 가장 빛지고 있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등 소설이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엄석대라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을 통해 한국의 파시즘를 고발했다면, 〈돼지의 왕〉은 학교폭력에 항거하는 김철이라는 '돼지의 왕' 을 통해 사회권력의 대물림을 고발하고 있다. 드라마의 과거 축, 즉, 중학교 교실에는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개의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도살되기 위해 태어난 돼지의 부류이다. 개들은 소수이고 돼지들은 다수인 점, 돼지들이 개들의 하층계급인 점,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개와 돼지가 결정되는 점으로 봤을 때 개는 '금수저' 로, 돼지는 '흙수저' 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드라마 속에서 엄석대와 닮은 것은 김철이 아니라 반장(강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철이 동정의 대상이 되는 순간 사회적 관계에서 무력해지는 설정은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과 유사하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은 캐릭터이다. 과거 축에서는 개들의 폭력에 홀로 맞서 싸워서 이기는 김철의 모습이 '돼지의 왕' 을 넘어서 '돼지의 신' 으로 비춰진다. 현재 축에서는 개들의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된 황경민이 가해자들을 차례대로 단죄하는 장면들은 속 시원하다.

드라마 속에서 가장 대비되는 인물은 김철과 박찬영이다. 김철은 칼만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칼은 짐승이 되어서 개들이 함부로 못하게 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김철의 권위는 문명화된 도구가 아닌 원시적인 태도에서 확보된다. 이는 김철이 싸울 때 두 주먹, 두 팔, 고작해야 허리띠 정도만 사용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반면 박찬영은 전기충격기를 만들고, 김철을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계략을 꾸미는 지능적인 인물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철은 원시적인 인물이기에 개들과 맞서 싸우지만, 박찬영은 문명화된 인물이기에 '개들의 개' 가 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드라마를 수작으로 꼽는 가장 큰 이유는 심원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복수를 실행함으로써 제도권 밖의 피해자에서 제도권 안의 가해자로 돌변하는 황경민의 모습에서 사회적 정의와 법적 정의의 간극에 대해 숙고하게 된다.

또한, 김철, 황경민, 정종석의 관계에서는 주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자문하게 된다. 정종석이 김철을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는 이유는 김철의 죽음이 신화화돼 돼지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 개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러한 꿈을 실현하는 것은 정종석이 아니라 황경민이다. 반면 현재의 정종석은 김철의 꿈이었던 경찰이 되어 있다.

황경민과 정종석은 과거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둘은 살아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김철은 죽어서도 살아 있다. 김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암언 스님의 말씀대로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깨어 있을 때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리라. 임제선사의 말씀대로 이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리라. 〈소설가〉

社 說

'문화포교' 선례 남긴 회당문화축제

해마다 여름이면 울릉도에는 신명나는 축제가 열린다. 바로 '회당문화축제' 다. 이 축제는 진각종의 개종조인 회당 손규상 대종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대종사의 고향인 울릉도에서 2001년도부터 열리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밀교 종단인 진각종이 주최하는 축제이지만, 종교색은 최대한 덜어내고 오로지 문화로만 채웠다. 이를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울릉도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는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잡았다.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신 120주년을 맞아 열린 올해 회당문화축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협의회 회장단이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3년만에 재개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 했다.

6월 29일 열린 독도 아리랑 콘서트는 축제의 백미였다. 지역 어린이들의 공연부터 댄스 크루의 퍼포먼스, 국악 가수와 유명 밴드의 공연까지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채워진 이날 콘서트에 지역 주민은 물론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도 열광했다.

많은 지역 축제가 있지만, 회당문화축제처럼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호응을 받는 축제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이는 진각종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호흡했기에 가능했다. 그랬기에 19번의 축제가 이뤄질 수 있던 것이다. 회당문화축제는 명실상부 '문화포교' 의 좋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진각종은 종조 탄생지 금강원의 성역화 불사를 추진하며 '국민들을 위한 힐링의 장소로 조성하겠다' 는 계획을 내놨다. 문화와 힐링으로 일반인에게 다가겠다는 의미다. 한국불교가 한반도에 정착할 수 있던 것은 일종의 문화가 됐기 때문이다.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것, 그게 문화의 힘이다.

군포교 나선 예비 포교사에 박수를

갈수록 열악해지는 군포교 현장에서 희망을 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포교사 1차고시를 합격한 예비 포교사들이 군포교 현장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포교사단은 포교 제일선에서 현대의 부루나존자로 불릴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1만3000여 명의 포교사가 배출됐으며, 현재 약 5000명이 활약하여 포교전법에서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들은 조계종이 실시하는 포교사 고시에 합격 후에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지역에서 팀 활동과 봉사를 거쳐야 포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비를 들여 진행한다. 아무런 보상도 없지만 포교 원력 하나로 임하는 이들이다.

출가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은 군포교에도 밀어 닥치고 있다. 군승 감소 속에 사실상 스님 역할을 보완할 자원은 포교사가 거의 유일하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다. 군승법사들의 충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이다. 포교사들의 군포교 역량을 끌어올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력을 많이 양성하는 인재육성이다. 스님 못지않은 수행력과 윤리성, 불교교리 지식을 갖추고 교화에 필요한 대화법을 숙지한 포교사가 늘어나야 한다.

수십년 군포교 역사에서 군포교를 지원하는 포교사들의 역할은 크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땀을 흘려온 그들이 있기에 오늘날 한국불교가 있었다. 점점 어려워지는 청년장병 포교를 위해, 현장의 일꾼들이 한마음으로, 군불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